

6월 모평, 영어 1등급 1.47%... 전체적으로 '불수능' 수준

영어 1등급 비율, 도입이래 최저 국어·수학, 지난 수능 표준점수 비슷 오승걸 평가원장 "9월 모평·수능 공교육 과정 수준에서 출제할 것"



2025학년도 수능 대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4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지난달 4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에서 영어 1등급을 획득한 수험생이 전체 1.47%에 그치며 '불영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적으로도 '불수능'으로 평가된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난이도 조절 논란이 예상된다.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일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평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원은 앞서 6월 모평을 앞두고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어영역을 비롯해 수학, 영어 모두 매우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 영역 만점자는 6명이다.

◆ 국어·수학·영어 다 어려웠다
정부 방침에 따라 '킬러문항'이 배제된 이후 국어, 영어, 수학영역에서 사실

상 모두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월 모평에서는 특히 영어영역 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1등급은 39만2110명 중 5764명으로, 1.47%에 그치며, 영어 절대평가 도입이래 평가원, 본수능 모두에서 1등급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1등급 비율이 4.71%였던 지난해 수능보다 3.24%p 줄었다. 영어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넘으면 1등

급을 얻을 수 있는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수험생의 경쟁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상대평가 1등급이 상위 누적 4%, 2등급이 누적 11%라는 점에서, 이번 영어는 이보다 1등급 비율이 낮다. 6월 모평 영어 2등급 누적은 9.47%다.

국어와 수학영역도 까다로웠다. 두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각각 148점과 152점으로 '불수능'으로 평가된 지난해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수학은 통합수능 도입이래 "가장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1등급 내 점수 차를 보면, 최고점 152점, 최저점 135점으로 17점 차가 난다. 지난해 본수능 1등급 최고점(148점), 최저점(133점) 점수차는 15점으로, 이보다 더 크게 발생했다. 상위권 변별력이 크게 형성된 셈이다.

국어영역의 경우, 1등급내 표준점수 최고점과 최저점은 각각 148점, 132점으로 16점 차가 발생했다. 지난해 본수능 최고점(150점), 최저점(133점)의 점수차(17점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국어·수학영역은 최상위권 1등급도 풀기 어려울 정도로 상위권 변별력 확보되는 수준으로 보인다"라며 "영어과목도 절대평가 과목임에도 상대평가 때보다 더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매우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난이도 조절 어려워...수능, 공교육 맞춰 출제"

출제본부는 이번 평가에서 '난이도

조절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출제경향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도 등 올해 응시 집단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9월 모평과 수능은 공정수능 기조를 유지해 공교육 과정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어영역의 경우,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적정 수준의 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출제하겠다"고 했다.

6월 모평 응시자는 총 39만2783명이었다. 47만4133명이 원서를 접수했지만, 8만1350명(17.1%)이 시험을 보지 않았다.

전체 응시자 가운데 고교 3학년 재학생은 31만8906명(81.1%),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 'N수생'은 7만3877명(18.8%)이다. 접수 당시 N수생은 8만8698명이었지만, 1만4821명(16.7%)이 결시했다. 지난해 6월 모평에서 N수생 응시자 비율은 19.8%였지만, 올해는 1.0%p 하락했다.

/이현정 기자 lhj@metroseoul.co.kr

뭣 "일상의 변화, 청계천의 변화보다 더 가치 있어"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기후동행카드 등 일상혁명 정책 꼽아 광화문 조형물 설치엔 "귀 더 열 것"



오세훈 서울시장 1일 서울시장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1일 서울시장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건 거대한 프로젝트나 시설물이 아니다"며 "누구나 어디서나 차별 없이 매일 누릴 수 있는 일상에서의 변화, 축적돼 가는 일상의 변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일상생활의 변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늘 생활 속에

서 느껴지는 하루하루 만들어지는 조그맣고 소소해 보이는 변화가 청계천의 변화보다 더 가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관 '기후동행카드' ▲스마트위치와 전용 앱을 통해 건강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형 헬스케어 프로그램 '손목닥터9988' ▲청소노동자들의 출근 편의를 돕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등을 대표적인 일상 혁명 정책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손목닥터9988 '500만 시대'를 목표로 일상 속 걷는 운동과 함께 식습관 관리를 도와 '건강 장수'라고 하는 인류 보편의 목표에 한층 다가가는

선도도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와 약자를 생각하는 교통 체계 혁신으로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을 완성해 나가겠다. 대중교통 이용부터 문화 활동까지 카드 하나로 해결되는 기후동행카드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더해져 더욱 진화해 나갈 것"이라며 "새벽과 심야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자율주행버스를 확대하고, 고지대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형 교통수단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극기 계양대를 만드는 문제는 귀를 더 열 것"이라며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판에는 반응한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하겠다"고 말을 뺐다.

시는 지난 6월 25일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계양대를 세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장 하라고 뽑아냈는데 임기 반환점 도는 시점에 벌써 대권 운운하는 것은 유권자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청계천보다 더 중요하다"며 "아마도 저를 4번씩이나 시장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서울시민들은 이미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ik1@

경기도 '돌봄의료 서비스', 9개시로 확대

고양·화성·시흥시 추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대상자 제한 없는 방문형 의료·복지 통합서비스인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가운데 7월 1일부터 일산복음병원(고양시), 동탄시티병원(화성시), 신원연합병원(시흥시)에서도 돌봄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지난 2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소재지인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6개 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군 공모를 거쳐 3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서비스 지역도 6개시에서 9개시로 늘었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돌봄의료팀이 서비스 신청자의 집을 방문해 진찰, 처방, 활력징후 측정, 각종 검사, 영양 교육 및 상담, 생활습관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이 필요할 경우 지역 내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안내도

한다.

기존 재택의료 사업과 달리 장기요양 등급자 등 대상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도민일 경우 누구나 방문의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돌봄의료매니저를 통한 기초조사 후 돌봄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9개 시에 거주하는 돌봄의료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지역 서비스 병원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간단한 상담과 건강평가를 거쳐 돌봄의료팀이 집을 방문한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5 | 해질 19:57

7월 2일 (화)
음력 : 5월 27일

수도권 날씨
24~26°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이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20/26, 동두천 21/26, 가평 21/25, 파주 21/25, 서울 24/26, 양평 22/26, 수원 24/26, 용인 24/26, 백령도 19/23, 인천 23/25, 평택 22/2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대만 TSMC 2나노 수요 증가 등으로 내년 50조원 투자 계획 /사진 뉴시스
▲ 프랑스 1차총선 결과 범여권 20.76% ...국유 33.14%·파파연합 27.99%

▲ 日 신형 H3 로켓 발사 성공...지구관측위성 '다이치 4호' 궤도 안착
▲ 바이든 TV토론 완패는 시간 탓?...보좌진 "오후 4시까지 안전적" 해명



▲ 펠로시, '토론 참사' 바이든 비호... "트럼프 치매설 있어" /사진 뉴시스
▲ 일자위대 70년, 미군과 일체화 진행... '공격의 창'으로 바뀌나